
기획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들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정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지영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과 유지

—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

한신갑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정

쿠와줄루 나탈대

〈논문요약〉

지역화폐운동은 지역 자체 안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할 계기를 제공해준다. 현행 화폐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지역화폐 운동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대안적 사회모델로 지역화폐공동체는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삶을 모색한다. 특히 상품-화폐관계를 넘어서 상호부조의 공동체 형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화폐체계는 전반적인 상품시장이 일반화 된 체제를 벗어나 지역적 차원에 머문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 화폐를 지역화폐 혹은 노동시간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화폐물신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지역화폐운동은 자본주의의 시장구조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상품사회의 균열 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대면적 유대관계를 복원시키는 동시에 참여자가 필요한 물건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농경사회에서는 쌀과 같은 직접 생산물이 부의 주된 척도였고 토지가 그 기초였다. 그래서 부의 기초가 된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현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시장경제가 일반화된 산업사회에서는 화폐가 대표적인 부의 척도이다. 대부분의 물건 및 서비스를 시장의 화폐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면서 돈은 사회 가치의 기본 잣대가 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은 화폐의 급부상을 포착하고 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목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과 짐멜(Georg Simmel) 등이 있다. 짐멜의 지적처럼 화폐가 전반적인 사회 평가에 있어서 지배적인 척도가 되면서 정신문화의 고유한 질적인 가치가 도외시되고 모든 것이 동일하게 화폐의 양적 척도로 평가되는 수평화의 비극을 낳았다. 현행 화폐체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화폐 그 자체를 개혁하는 사회운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제 위기 때에는 대안경제를 제시하는 지역화폐운동(local currency movement)¹⁾이 급부상한다.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1) 이 글에서는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국가화폐(national currency)와 대비되는 용어로 지역통화와 보완통화(complimentary currency), 그린달러(green dollar), 에코머니(eco-money), 오리지널머니(original money), 자주통화, 자유통화, 회원제 통화로 불리는 모든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어떠한 기준으로 화폐의 단위를 산정하는가에 따라 LETS와 Time Dollar, Hour 등으로 구분된다(류은화 2000 참조).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는 공동체

않았더라면 지역화폐제도도 짧은 시간에 소개되고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신문이나 방송, 시민단체들은 주되게 사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이창우 2002).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그리스의 국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자 그리스 소도시 볼로스 지역화폐의 회원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화폐운동은 이를 일컬어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고 한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력을 팔지 않고 권위적인 명령체계 속에 일하지도 않으며 화폐의 수량이나 가시적 성과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 경제 방식, 즉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강수돌 2002). 지역화폐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지역화폐가 생겨난 지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 정신의 고양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조너선 크롤 2003).

지역화폐운동이란 회원 간에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돈이 없이도 회원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실천이다. 지역화폐는 특정집단 내에서 물건과 서비스의 교환을 도와주는 목적을 수행하는 화폐이다. 지역화폐운동은 자본주의적 소유와 축적을 비판하고 무엇보다 현행 화폐제도 및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민주주의적 방식을 민주적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비단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만’을 의미하지 않는

화폐운동(community currency movement)을 지역통화 또는 지역화폐운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고 무엇보다 초기 LETS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화폐를 대신하는 용어처럼 사용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레즈가 지역화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므로, 이 글에서도 대안 화폐의 유형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대안 운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역화폐’와 ‘지역화폐운동’의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레즈’ 역시 지역화폐의 의미와 지역화폐운동의 이념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사용한다.

다. 한국 사회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보한 정치영역의 민주주의는 경제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지역화폐운동은 경제영역의 민주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풍부하고 다양한 구상을 제공해줄 수 있다.

지역화폐운동은 현행 화폐제도의 대안으로 ‘지역화폐’의 운영 원리를 제시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체계의 원리인 화폐 그 자체에 대한 이론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화폐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단지 화폐가 현실에서 수행하는 기능 ‘만’을 주목할 뿐이다. 지구화된 세계에서 물물교환이 전산화되면 국가 화폐와 중앙 은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대안 화폐론이 아닌 신통화경제학(Cohen 2001; King 1999)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 대안 화폐론은 국가 화폐에 반대해 국지적 교역체계로 조직하여 국지적인 교환 수단을 구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두 논의는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서로 상반되지만 화폐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사하다. 이들은 국가 없이도 화폐가 자생적으로 존속할 수 있고 화폐가 교환의 매개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서로 상반되는 사회상을 제시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와 지역 공동체주의가 동일하게 현행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지역화폐는 화폐만능주의가 화폐의 기능에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화폐의 기능 중에서 교환 매개 기능 이외의 필요성을 제한한다. 화폐만능주의의 원천이 화폐의 기능 때문인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화폐 자체의 본성에 대해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폐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화폐를 그의 기능적 역할에 국한되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본질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운영 원리와 지역화폐운동의 토대인 화폐론을 연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기본 작업을 통해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1997년 경제위기를 접하면서 대안사회 모델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및 지역화폐운동을 주목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과정 속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숙례 1999; 이득연 2000; 류은화 2000; 임종환 2004; 강환세 2005)와 지역화폐공동체의 심층적인 사례를 분석 연구(박용남 2001; 김현욱 2007), 지역화폐운동 참여자의 동기를 분석한 연구(권인천 2001), 지역화폐운동과 공동체 의식 형성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형용 2000), 지역화폐운동에 참여한 소비자행동과 태도를 통해 지역화폐운동의 소비문화적 함의를 살펴본 연구(천경희 2006; 양정하 2009), 지역화폐운동의 경제교육적 의미에 대한 연구(권희선 2006)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화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채연 2000; 강수돌 2002; 류동민·최한주 2003)는 지역화폐의 본질과 속성 및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적이다.

류동민·최한주(2003)는 지역화폐의 거시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NAM(new association movement)을 제시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입장이 있다. NAM은 자본에 대항하는 곳으로 유통(소비)과정을 주목하여 소비자로서의 노동운동을 제시한다. 이는 보이콧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제 경제 속에서의 내재적 투쟁과 비자본제적 생산과 소비의 형태(시민화폐와 생산-소비협동조합)를 만들어내는 초출(超出)적인 투쟁을 통합한다. 고진의 언급대로 NAM은 “일하지 말라(적확한 의미는 노동력을 팔지 말라)”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경고와 “자본제 상품을 사지 말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경고를 동시에 실천함으로써 자본 관계를 지양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화폐운동을 지역자원순환형 경제 구축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지역중심으로 거래관계망을 형성하여 생산-유통-소비-폐기가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생태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지역화폐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3섹터 및 시민 사회의 확장을 강조하는 삶의 정치(life politics),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론(Giddens, Beck, Rifkin 등)은 공동체화폐운동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Peacock 2000 참조). 지역화폐의 두 가지 측면, 즉 자본주의 화폐의 대안 경제영역을 만드는 것(Paciou 1997 참조)과 생태순환형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두 입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운동은 자본주의 화폐경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된 목표로 지역 순환형의 대안공동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화폐운동은 현재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매개로 하여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대안 사회 모델로 제시한다.

지역화폐론에 대한 기존 논문은 두 가지 연구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연구는 지역화폐공동체에 관한 국내·외적 소개 및 국내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현장 조사이다. 소수의 연구로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가 지역화폐의 유의미성과 장점을 제시했다면 정치경제학적 분석 연구는 지역화폐운동이 봉착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는 분리되어 해석되기보다는 지역화폐운동의 두 측면을 결합하여 이해해야 된다. 경험연구는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성과를 밝힌 측면에서 ‘실천’을 강조한다. 반면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지역화폐운동의 작동 원리 및 기제를 ‘화폐론’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폐운동이 지닌 실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은 서로 종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합해 지역화폐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연구된 지역화폐운동의 경험조사를 활용하여 지역화폐운동의 유의미성과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음

으로는 기존 정치경제학적인 연구에서 평가한 지역화폐론의 입장을 수용해 지역화폐운동의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좀 더 폭넓게 지역화폐운동을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첫 번째로 지역화폐공동체의 민주적 운영 과정을 주목하여 지역화폐운동을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참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역화폐운동이 지니고 있는 민주주의의 유의미성을 찾아본다.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지역화폐운동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긍정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론이 왜 유통 영역을 주목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가치론의 관점에서 화폐를 설명한다. 이는 지역화폐론이 지닌 한계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현행 지역화폐운동의 평가를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참여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지역화폐운동의 내적 한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표 1〉 참조).

이 연구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참여 민주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한다. 이는 지역화폐체계의 운영 방식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열하기보다는 지역화폐운동이 직면한 문제가 운영 원리 상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다.

〈표 1〉 연구 분석 방법

구분	지역화폐 운영 성과	지역화폐의 이론
분석 방법	지역에 기반한 참여민주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화폐론
기대 효과	지역화폐운동의 긍정적 평가	지역화폐운동의 한계점

3. 지역화폐의 의미와 운영 원리

지역화폐론은 현행 화폐제도의 폐해가 전반적인 사회문제 특히, 가난과 실업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 일례로, 지역화폐론은 국가 화폐의 부족 및 원활하지 않은 화폐의 흐름 때문에 경제 위기 및 공황이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화폐체계는 지역공동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군주나 국민정부가 중앙은행 또는 기타 중앙집중화된 권력이 사회 전체가 사용할 돈을 발행해왔다. ... 1930년의 대공황과 더불어 미국 전역의 수천 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그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던 예탁금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농민들은 여전히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고 지역자치제와 개인들은 여전히 충족시켜야 할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은 기술과 일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제 요소들을 재결합시켜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기업 연합 또는 자선기관들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용도를 가진 독자적인 화폐체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대공황기의 지역화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바바라 브란트 1996).

지역화폐론은 화폐 사용의 필요가 교환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수단에서 과도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화폐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본다. 아베 요시히로·이즈미 루저(2002)의 주장처럼 돈은 흔히 혈액에 비유된다. 혈액은 사람의 신체를 순환하며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그러나 현재 돈의 흐름은 머리쪽으로만 올라가고 발까지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윤을 목표로 한 생산관계에 문제가 생길때 돈의 흐름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론은 인간의 필요

에 의해 생산 및 소비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화폐체계의 개혁을 주목한다.

중앙집중적인 화폐제도의 폐해는 지역화폐체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근거가 된다. 지역화폐는 우선 지역적으로 창출된 부를 지키고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안에 돈을 지킨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라도 (인플레이션이나 공황 때문에) 지역경제는 계속 운영된다. 세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행적인 돈이나 소득이나 일자리가 있든 없든, 재화와 서비스를 갖는 것을 허용한다. 네 번째로 자연 자원과 사람들의 기술과 상호 간의 결속과 같은 진정한 부의 원천에 화폐체계를 접목시킴으로써 지역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킨다.

지역화폐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이 시스템은 매우 단순해서 (1)등록한 회원이 자기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0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2)사무국이 정기적으로 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가 어떤 재(財)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누가 어떤 재와 서비스를 찾고 있는지를 회원에게 알려준다. (3)각 회원은 그 정보를 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연락을 취해 가격 등의 조건을 교섭한다. (4)거래가 성립하면 그 결과를 운영단체에 보고하며, 거래 내용은 각 회원의 계좌에 기록된다. 회원에게는 장기적으로 계좌의 수지(플러스·마이너스)가 보고된다(마루야마 마코트 1996, 75).

지역화폐는 운영 단체가 관리하는 계좌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플러스 포인트가 부여되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포인트가 붙어가는 시스템이다. 지역화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된 돈의 발행을 공동체에 참여한 개개인에게 위임하고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화폐가 발행된다.

국민화폐와 지역화폐의 본질적 차이는 유통이 전국적인가 일정 지

역인가라는 유통범위가 아니라 화폐의 성격, 즉 전자가 의미하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 시장의 교환과 후자가 포함하고 있는 상호부조, 공동체의 신뢰에 토대가 된 교환의 성격이다. 이채언(2000)은 지역화폐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지역화폐 기능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레츠 통화를 많이 수집한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존의 정부지폐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시키려면 결국 지역 내의 생산자나 근로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용을 창출하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생산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화폐의 세 가지 기능, 가치척도 기능, 교환매개 기능, 가치저장 기능 가운데 교환매개 기능만이 가능하다. 그것도 좁은 유통영역 내에서만 교환을 매개한다. 따라서 이 지역화폐는 직접 당사자들끼리만 이루어 지던 물물교환 경제를 일종의 네트워크를 가진 여러 사람들 간의 물물교환경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각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물건을 상품처럼 팔고 그 대금으로 레츠 화폐를 지급 받아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지불한다. 이 기능 자체는 통상의 화폐와 동일하지만 통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매 가능한 상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화폐의 여러 기능들, 이를 테면 가치저장 기능이나 화폐 자본화 기능은 불가능하다(이채언 2000: 269-270).

화폐의 기능을 교환 기능으로 제한한 지역화폐의 장점은 첫 번째로 자산을 내세우지 않는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는 내재된 통제와 지침서, 한도를 제공해준다. 세 번째로 지역화폐는 공식적인 통화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 단지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원칙과 윤리, 다른 목적과 목표가 담겨져 있다. 네 번째로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를 수월하게 보강해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지역화폐는 존재하는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고 새

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특징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구제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도입되었다.²⁾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래화폐’를 사용하는 공동체 화폐제도를 운영했다. 지역화폐 ‘두루’를 사용하는 한밭 레츠는 1999년 회원모집을 시작으로 2000년에 출범했다. 과천 품앗이는 지역화폐 ‘아리’를 기반으로 2001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송파 머니’를 거래하는 송파 품앗이는 1999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고산 품앗이와 광명 그루, 대구지역 화폐 늘품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

2) 지역화폐는 비단 국내활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킨세 일 지방은 시간 은행제도를 도입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했다. 시간 은행 원칙은 첫 번째로 자원봉사 노동은 동일한 가치로 측정한다. 한 시간의 자원봉사=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한 시간의 신용, 두 번째로 각자의 기여도는 특별하게 취급받는다. 세 번째로 기부자의 시간 기부는 공식적으로 체크된다. 개인 시간은행은 정기적으로 ‘내역서’를 발급한다. 네 번째로 필요가 발생한다면 기부자는 후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우선권을 갖는다. 신용은 ‘소비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은행은 사회적 보험형태로 제공된다. 다섯 번째로 신용은 기부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된다. 예를 들면 노인 가족 구성원들에게 중앙 신용 풀(pool)제도 혹은 다른 지역의 시간은행으로 이전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시간 신용은 이자 혹은 현금으로 저장할 수 없고 단지 상수로 남는다. 또 다른 영국의 예로 토트네스는 1986년 광우병이 지나간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했다. 토트네스 Pound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에서 화폐 순환이 유지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회복이 생겨난다. 두 번째로 지역사람들이 그들의 화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더 많은 지역 교류를 활성화시켜 먹거리와 수송의 거리를 단축시킨다. 이 화폐는 이자 없이 지역의 화폐 유통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 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www.totnes.transitionnetwork.org/totnespound/home 참조).

다. 하지만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통화 ‘민들레’는 활동을 멈춘 상태이고 전주 품앗이 등 크고 작은 지역화폐가 개점 휴업 상태이다. 그 밖에 태백지역화폐, 대구시 중구지역활성화센터도 현재 운영이 정지된 상태이고 불교환경교육원 두레의 경우 2011년 초 지역화폐 담당자가 그만두면서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품앗이도 2001년 중단되었다. 한편 운영은 되고 있으나 현상 유지 내지 정체상태인 경우도 여럿이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의 경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관악지역화폐의 경우 전담 실무자가 이직하고 운영책임을 운영위원회가 맡게 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천경희 2006).

최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지역화폐운동 단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밭 레츠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지원없이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되는 곳이다. 한밭 레츠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화폐제도 중 활동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이며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시도하고 있다. 거래 회수가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거래 품목도 재활용품과 농산물, 의료, 교육 거래 등으로 해마다 폭을 넓혀가고 있다. 과천 품앗이는 과천지역의 주부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교육품앗이다. 2001년 4명의 회원으로 시작돼 현재는 150명으로 늘었고 한 해 약 7,000만 아리가 거래된다. 1시간 노동에 대한 1만 아리를 제공하며 거래방식은 통장형이다. 운영 초기에 주된 거래내용은 교육 및 학습거래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노동 품앗이가 거래된다. 1999년 송파구청의 지원 아래 송파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하여 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원한다. 회원들 사이에 학습지도와 차량 정비, 집수리 등이 거래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장터에서 회원들 간의 물물교환이 활성화된다. 고잔 품앗이는 2002년 고잔 1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물품 교환과 가사품앗이 등이 거래된다. 가사 품앗이는 전액 ‘고잔머니’로 지불하고 여타의 상품이나 서비스

는 10~50%를 고잔머니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국가 화폐로 지불한다.

2004년 광명그루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아젠다 21과의 협조하에 결성되었다. 통장형으로 거래가 되며 1그루가 1원인 등가원칙이 적용된다. 매달 토요일 장터학교가 열린다. 대구지역화폐 늘품은 2005년 본동 종합복지관내에서 운영되었는데 개인 거래 시 거래금액의 50% 이상을 지역화폐 ‘품’으로 거래된다. 회원은 현재 1,200명으로 품을 이용한 거래 건수는 하루 100건에 이르고 지난 7년간 쌓인 늘품은 1억 7천만 원에 달할 정도이다. 늘품은 도시락배달과 물품 판매 등에서 화폐를 받을 수 있다. 부천희망품앗이는 2008년 부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지역화폐운동이다. 시장 봐주기, 청소 해주기, 반찬 만들기, 빌려주기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품앗이가 가능하다. 품앗이 장터에는 두 가지 교환방식이 있다. 우선 쓰던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 또는 새 물건을 품 장터에 내놓으면 거래자가 가져온 물건들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씨앗 시스템으로 저렴한 산지 가격은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씨앗으로 기록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주된 특징인 설립 및 운영 주체와 운동의 성패 요인, 거래 품목 등으로 지역화폐운동을 구분할 수 있다. 지역화폐운동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밭 레츠와 과천 품앗이는 지역주민 주도형 단체이다. 반면 송파 품앗이와 고잔 품앗이, 광명 품앗이 등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이 강한 곳이다.

무엇보다 한밭 레츠와 대구지역화폐 늘품이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소모임과 행사를 통해 유기체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밭 레츠는 품앗이 만찬과 야외운동회, 소식지 「좋은 이웃」 발간, 두루부엌, 주말농장, 다양한 지역모임, 노래공연모임, 엄마랑 아기랑 모임, 공동육아모임, 짬짬이 노래공연모임, 등산모임, 노인들 친교모임, 민들레간병도우미, 이동영화관사업,

〈표 2〉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구분

설립 및 운영 주체	
지역주민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한밭 레츠, 과천 품앗이	송파 품앗이, 고잔 품앗이, 광명 품앗이
안착화 성패 요인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자체 프로그램 개발	열악한 재정 및 운영자 부족
한밭 레츠, 송파 품앗이, 과천 품앗이, 대구 지역화폐 늘품 등 품앗이만찬, 품앗이학교, 물품공유소, 소모임, 동네품앗이, 월례회, 소식지 발간, 정기 간담회 개최, 월례회, 불우이웃돕기, 장터, 소식지 발간, 방학특강, 공동육아소모임, 환경캠페인, 전래놀이보급운동, 소식지 발간, 기증물품 베품시장 판매, 복지관 등에 물품 제공, 바자회, 그루학교, 그루장터, 조사홍보사업, 가맹점 유치, 늘품회원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 조성 사업, 먹거리 나눔전, 여행 이벤트(권희선 2006)	민들레, 전주 품앗이, 태백지역화폐, 대구 중구지역활성화센터 지역화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품앗이 등
거래 품목	
물물 교환 및 다양한 거래 품목	노동 품앗이
한밭 레츠: 의료, 가맹점거래, 농산물, 재활용품, 회원물품, 교육, 배달, 자원 활동, 후원금 등(권희선 2006)	송파 품앗이, 과천 품앗이, 고잔 품앗이 등: 생활 강좌, 집수리, 자녀교육, 가정도우미, 외국어, 예능지도, 컴퓨터, 자동차관련 상담, 재활용 및 생활용품, 식품, 이마용, 웨딩, 자영업, 학습, 예체능, 육아, 가사, 차량 품앗이, 의료, 다도, 편집, 세무 회계기장업무, 회원물품, 음식, 수리 및 제작, 차량서비스, 옷 수선, 도배, 학습지도, 아이돌보기, 생활용품, 도서, 천연염색, 자원활동, 교과지도, 지역가맹점, 교육, 상담, 가사활동지원, 노동력, 옷, 컴퓨터 및 관련 기술, 운전, 수선기술, 식품(권희선 2006)
운영상 어려운 점	
모임장소 부족, 홈페이지 및 계정프로그램 관리 비용문제, 후원금 및 사업비 지원의 어려움, 회원 간의 송파머니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플러스 계정과 마이너스 계정), 자체사무국과 상근인력 없음, 독자적인 사무 공간 없음, 회원관리프로그램 미비, 재정 빈약, 품목의 다양화와 활동내용의 제약, 예산 부족, 사업을 진행할 인력과 자원 부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족, 인건비 및 진행비 부족, 지역통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 어려움, 회원업체 창출의 어려움(권희선 2006)	

나눔두루장터, 품앗이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늘품의 경우도 탁구와 서예, 토피어리 만들기, 기타배우기 등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 품앗이의 운영위원회는 총무, 회계, 기록을 비롯해 홍보분과, 행사분과, 교육분과, 품앗이사업부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과별로 소식지 작성과 월례회 준비, 신입교육과 같은 품앗이 행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관계 형성 및 참여를 도모한다. 이처럼 월례회나 만찬 등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 지역화폐운동의 성패를 가름한다.

지역적 대면관계가 증폭이 되면 될수록 지역화폐의 거래 역시 활발해진다. 이런 연결고리를 파악한 한발 레츠는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화폐 거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두루’라는 화폐 이름을 써가며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도 난감하고 거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등록소에 연락해야 하는 것 또한 번거로운 일이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까운 대형 할인점이나 시장에 가서 사는 게 훨씬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편한 것은 모르는 사람과 연락해서 협상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은 어떤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청년인지, 가격은 적정인지, 거래 상대방이 만족할지, 언제 어디서 만나 거래해야 할지를 모두 고려해야 겨우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었으나 가장 큰 불편함을 우선 해결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품앗이 만찬’이라는 행사였다. 회원들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 외에 2~3인분 정도를 더 추가해서 음식을 준비해오도록 했다. 이렇게 서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장기자랑도 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것을 하나 이상 준비해오자고 했다. 이렇게 시작한 품앗이 만찬 행사는 두 달마다 한번씩 지

금도 빠짐없이 열리는 행사가 되었고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몰라서 생기는 낯설고 어색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김성훈 2006, 76-77).

지역화폐운동은 대부분 도시에서 이뤄진다. 이런 점에서 물품의 생산보다는 품앗이와 같은 노동 제공과 물품 교환 및 거래가 주된 활동 내역이다. 한밭 레츠의 경우 다른 지역화폐운동 단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노동 품앗이에 더해 물품 교환 및 다양한 거래 품목을 확대했다.

5.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1) 지역화폐운동의 성과

돈의 증식을 거부하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화폐공동체는 지역공동체 연대 의식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대면관계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지역적 유대감을 형성해간다. 부산의 사하 품앗이 운영자는 지역화폐가 ‘돈’만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감도 형성됨을 강조한다. 지역화폐의 유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이웃의 정이 돈독해진다는 성과도 발견된다. 이처럼 지역화폐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지역화폐 거래를 통해 참여자는 거래자들과 관계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지역화폐 내에서 생산과 소비 및 교환이 대면관계로 거래되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된다. 지역화폐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적 신뢰관계를 높인다. 이는 지역 내에서 교환 관계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참여와 민주주의,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회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송과 품앗이와 한발 레츠의 참여자들에게 거래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거래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이들은 거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관계망을 확보한다. 또한 거래를 통해 맺어진 관계 속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인식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인식하게 된다. 즉 이제까지 그저 잠자는 곳, 자녀들의 학군에 정해지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인식하게 된다. 참여과정 중에 참여자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송과 품앗이와 한발 레츠에서 각각 제2의 고향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에게 송과 품앗이와 한발 레츠는 “따뜻함을 간직한 곳”, “친정 같은 곳”, “고향 같은 곳”, “정이 많은 곳”, “가식이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 따라서 지역화폐운동은 거래를 통해 관계를 맺고 이러한 공공적인 상부상조의 길, 즉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상부상조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으며 그 바탕 속에서 지역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신뢰사회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의미부여가 됨으로써 가능하다(김현옥 2007, 116-120).

민주주의는 자율적인 인민의 자기 통치를 의미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부터 오늘날 근대 국민국가적 정치단위체의 틀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실현 형태가 어떠한 간에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 결정을 통해 공동체의 사안들, 즉 정치적 사안들을 처리하는 정치사회질서

의 확립을 그 핵심적 지향으로 가지고 있다(윤형식 2002, 195).” 하지만 인민의 정치 참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의 틀 안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행사로 국한된다. 스페터(2011)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경쟁이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처럼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정치인이 제공하는 정책 상품들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정치 소비자의 행위로만 국한된다.

시장의 작동 원리가 정치의 영역에 근간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비오(Bobbio 1987)는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으로 표현한다. 정치적 시장관계에서 일반 대중과 정치 엘리트 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비대칭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시장민주주의는 표면으로는 1인 1표로 대표되는 정치 평등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불평등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참여민주주의의 축소 내지는 상실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생활세계의 도전으로 지역화폐공동체는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운영 원리를 제시한다. 인민의 ‘참여’ 민주주의가 시장 질서로 인해 왜곡되게 나타나는 자유주의 시장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반감내지는, 자본주의 질서를 극복으로써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케 하는 지역화폐의 운영 원리는 현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당파성이 강한 자유주의 시장민주주의의 극복 지점은 지역화폐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비당파성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인민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형성한 결사체(association) 안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현되는 참여 정치는 참여민주주의가 ‘일부분’ 발현된 모습이다. 기존 시장 질서와 권력에 대항한 자율적인 지역화폐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토의를 통해 인민의 자율 통치가 일정 정도 현실

화된다. 이러한 공론장의 형성은 참여자들의 동등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하버마스(Habermas 19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토론과정 속에서 함께 대화와 토론, 토의함으로써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계속 변화시키고 공동으로 합의된 집합적 의견을 만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사회통합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는 의사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화폐운동의 참여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변화된 삶의 방식 및 사고 전환의 핵심은 바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다.³⁾

시민들은 점차 의회와 정당 등의 대의민주주의를 떠나 참여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찾는다. 여기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무력한’ 시민이 아니라 ‘참여적’ 시민으로 등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등의 직접 참여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에 적극적이다. 정부와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히 전통적인 정치참여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활동, 서명운동과 시위 등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적’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성수 2006, 19).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운동은 ‘참여’ 민주주의 경험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민주주의는 실질적 변화이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천적인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여타의 부문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높여

3)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 차이 때문에 지역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참여민주주의의 ‘완벽한’ 실현이 아니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대중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화폐운동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준다. 이는 유토피아는 먼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만들어가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경험의 확산인 것이다.

2) 지역화폐운동의 한계

지역화폐운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표 3>은 지역화폐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에 대한 문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공동체 규모와 효과에 대한 문제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지역화폐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⁴⁾은 한국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표 3> 참조 및 박용남, 2011 참조).

지역화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의 핵심은 지역화폐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공받을 재화와 서비스가 한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화폐라면 전반적인 교육, 의료, 주택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공동체의 조건상 재화와 서비스는 지역적 차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일정 규모의 폐쇄된 교환 집단에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교환 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그 신뢰의 기반이 그들 내부의 경제적 교환 이외의 다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 교환 체제는 ‘제한적 목적의 화폐(limited-purpose money)’ 그 자

4) Aldridge와 Patterson(2002)은 영국 Hounslow 지역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화폐의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정리했다. 첫 번째로 빛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다. 통화의 흐름은 지역적 차원의 가입자들 사이에 돈이 이용된다. 두 번째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과 수요가 어렵다. ‘교환하는 날’을 만들어서 레츠 참여자들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간에 맞출 수 없다. 구성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레츠의 규모를 넓혔을 때 발생하는 지역적 한계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세 번째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낯선 이방인들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존재한다. 동질적인 집단이 작은 규모로 존재할 때 내부의 연결망은 견고하게 형성되고 유지된다.

〈표 3〉 지역화폐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구분	쟁점	세부 사항
재정에 대한 쟁점	빚(채무)에 대한 개념적 논쟁	사람들이—돈과 자원을—‘소비’ 한다는 문제는 ‘빚’ 개념의 새로운 논의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화폐에 대한 욕구	지역 통화의 제약성 빈곤은 참여로 배제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재화와 서비스의 유용성	레츠에서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 유형에 중요한 간극이 존재한다.
	공급의 효율성	필요할 때 재화와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다.
조직에 있어서의 장애물	지역/계획	조직의 만남과 사회적 사건, 레츠의 촉진, 명세서의 준비, 책임자의 갱신-막대한 관리 업무량
	국가	모범적 실천 모델의 형성, 국가적 차원의 합법화
공동체와 규모의 효과	신뢰/확약	레츠 작업은 밀접한 접촉과 공동의 연결을 가진 안정적인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최상이다. 다양한 유동 인구는 사람들이 낯설기 때문에 신뢰 형성의 장애물이 된다.
	규모	레츠는 작을 때 최상이다.— ‘자치구’ 수준에서의 문제

자료: Theresa J Aldridge & Alan Patterson, "LETS get real: constraints on the development of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s," *Area* 34(4)(2002), p.375

체일 뿐이다.

지역적 ‘제한’은 지역화폐 ‘송이’를 쓰는 사하 품앗이의 운영 과정에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화폐인 송이는 기대만큼 잘 유통되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 등록 회원이 600명에 달하지만 사실 충성도 높은 회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월 거래량도 50~60차례에 그쳤다. 그것도 원래 목적했던 노동 품앗이가 아니라 물품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물품도 한계가 많았다. 사하 품앗이의 예비사회적기업인 송이아띠사업단이 생산한 천연염색 제품이나 친환경 가정용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부산일보 2011/09/03).

자본주의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 및 교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화폐 교환은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생산구조의 이후 대안 사회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 및 분배는 대안 사회로서 미흡하다. 이는 대안사회 모델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생산영역이 아닌 유통영역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운동 그 자체에서 ‘지역’적 한계가 내재된 것이다.

자본에 대항하는 장으로 유통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으로 ‘화폐’를 우선적으로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고진(2002)은 마르크스가 화폐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화폐는 다른 물건과 교환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화폐 교환은 동시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착취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화폐는 필요악이다. 고진은 마르크스가 이러한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진은 이러한 마르크스의 공백을 해결할 대안으로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화폐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은 호혜적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2년 마이클 린턴이 고안한 레즈는 단순한 지역화폐가 아닌 자본제와 민족(nation), 국가(states)를 지향하는 대항 운동의 핵이다.

마르크스가 말한대로 자본의 운동은, 잉여가치가 없다면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잉여가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방법은 G-W-G라는 회로 밖에 있는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소비 협동조합이다. 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어소시에이션’(마르크스)에는 임노동(노동력 상품)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본으로 전화하지 않는 화폐, 즉 이자를 갖지 않은 화폐에 기초한 지불 결제 수단 시스템이나 자금 조달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 마르크스가 가치형태론에서 보여준 화폐의 독자적인 위상이다. 화폐는 단지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한 교환을 통해 모든 생산물의 가치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한 교환을 통해 모든 생산물의 가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모든 상품의 관계체계의 체계성으로서, 즉 초월론적 통각 X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폐는 꼭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한 것은 이 화폐의 기능에 의해서이다(고진 2005, 492-493).

고진은 기존의 지역화폐는 국지적 공동체에만 적용하는 생태공동체/어소시에이션 건설을 목표로 하고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적용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고진은 제한된 지역적 공간 내에서의 유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화폐를 제시한다. 시민화폐 L은 일종의 신용화폐인 포인트 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상점에 포인트분만큼의 돈을 맡기고 상점은 소비자에게 은행권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고진의 구상에는 현행 화폐혐오주의, 즉 화폐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화폐와 공동체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들은 화폐와 시장을 피해서 현행의 화폐 없는 공동체를 구축한다. 이는 교환가치의 배제를 통한 사용가치 중심의 단순 ‘상품’ 생산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막대한 생산력의 발전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신용이다. 신용은 산업과 상업 활동을 자극하고 더 원활하게 자금을 유통시키지만 동시에 생산 및 상품 교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 자립성이 극단화된 이자 낚는 자본의 형태가 가공자본 또는 의제자본이다. 가공자본이 산업자본에서 독립하여 분리될수록 자본이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저절로 증식된다는 관념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이는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축적을 증대하려면 신용 증대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치생산으로부터 독자성의 구축은 자기 생성적인 위기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이자 낚는 자본은 모순적이다. 신용량 증가는 실물 또는 산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대신 미래의 청구권을 거래함으로써 신용의 다른 양면인 부채의 상황을 연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대안사회 모델은 자본주의의 긍정성은 유지 및 발전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향하여 형성된다. 하지만 지역화폐 운동은 현행 화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화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화폐는 화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는 일반화된 상품시장 체계에서 화폐의 진명목을 발휘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폐 그 자체를 지역화폐 혹은 노동시간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화폐로 표현되는 화폐물신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인간 노동은 모든 생산물에 체화되어 있다. 생산물이 자신의 소비를 위한 교환이 아닌 타인의 소비를 위한 교환과 교환을 위한 교환이 발생하면서 생산물은 상품으로 존재한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이중성을 띤다. 이에 인간 노동 역시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이중성은 상품이라는 공통 지반에서 두 개로 나뉜다. 사용가치가 동일한 상품은 교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안경과 이와 같은 안경은 교환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용가치는 질적으로 다른 유용노동이 들어 있지 않다면 상품으로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

상품을 교환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환비율이다. 왜 배추

1포기와 오이 5개가 교환되는가? 그것은 바로 배추 생산에는 오이 생산에 걸리는 시간보다 다섯 배나 긴 노동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노동이 얼마나 지출되는가는 상품가치의 크기를 결정한다. 가치로서의 상품의 객관적 성격은 사회적 형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는 오직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자신과 교환을 하지 않듯이 교환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어 있다.

“상품들의 가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표현의 발전을 그 가장 단순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부터 휘황찬란한 화폐형태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것이 달성될 때 화폐의 신비는 곧 사라질 것이다”(마르크스 2005, 60). 상품들의 가치표현의 발전사에 이미 화폐 등장의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화폐 폐지를 통해 모든 상품들 간의 직접적인 교환 가능성을 얻는다면 화폐는 사라질 것이라는 현행의 화폐혐오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들이 화폐(의 교환 기능)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가 다른 여러 상품에 대해 화폐로 상대하는 것은 화폐가 이전부터 상품으로 상대하고 있는 사회적 상품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화폐폐지론은 화폐가 곧 상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화폐 고유의 신비성을 강조한다. 화폐 고유의 신비성은 화폐들 사이의 관계 및 물건들 사이의 관계‘만’이 눈에 보일 뿐 물건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 노동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3) 지역화폐론에 대한 평가

화폐가 가지는 독특성, 즉 다른 상품과의 직접적 교환가능성이라는 속성은 화폐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 직접 교환가능성의 형태가 비직접적 교환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대립적인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프루동은 이를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동시적으로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얻게 된다. 상품생산에 내재한 상품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교환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화폐가 특권을 지녔기에 화폐의 특권‘만’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 프루동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화폐가 상품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게 보이는 것은 유통과정의 단순한 허상이다. 따라서 화폐가 화폐인 이유는 대상화된 노동시간으로서의 상품들의 동일한 기준에 따른 가치측정에 있다.

화폐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자체로부터 화폐가 유래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에서 화폐의 독특한 형태규정성을 순수하게 파악해야 하고 상품들의 가치관계가 포함된 ‘가치 표현’의 발전에서 화폐의 발생 기원을 밝혀야 한다. 상품세계 안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상품(화폐)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 되며 화폐가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독점하게 된다. 상품들이 그들의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화폐로 표현하면서 화폐는 그들의 교환가치를 직접 모든 상품으로 표현한다. 상품들이 스스로 서로에 대해 교환가치 형태를 부여하면서 그들은 어떤 특정한 상품에 일반적 등가물, 즉 화폐 형태를 부여한다. 이는 화폐의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특권을 부여한 상품생산 일반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화폐가 주류경제에 편입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처방이 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한한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레츠에는 실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환경 친화적이고 ‘대안적 생활 방식’의 풍속을 좇는 자영업 중간계층도 소수이기는 해도 꽤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레츠가 가져올 효과가 보통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증거가 있다. 오히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되려 불평등 수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도구나 장비, 희소한 지식과 기술처럼 중간 계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면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레츠의 교환 매개체를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반면 하층 계급은 꼼짝없이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집약적으로 들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 예를 들어 중간 계층은 아주 유리한 교환 비율로 레츠 크레디트를 손에 넣어 이것을 축적한 뒤 이것으로 오갈 데 없이 레츠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자기 집 가정부로 고용할 수 있다. 레츠가 비교적 폐쇄성을 유지하고 주류 경제로부터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는 한, 오히려 이것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장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제프리 잉햄 2011, 386-387).

기존 질서의 사회적 불평등한 기제가 지역화폐공동체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의 긍정성은 제한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화폐가 현 사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와 병행가능한 제도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마루야마 마코트와 베르나를 리에테르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는 현재의 화폐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하여 지역의 공동재산인 지역통화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자금 순환의 기반이 형성되고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제시한다(마루야마 마코트 1996). 지역통화가 국가통화의 전면적인 대체물이 아니라 지역통화는 ‘보완적’ 통화인데 이는 협동적인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적합하다(베르나를 리에테르 1998).

지역화폐의 시작점은 생산영역이라기보다는 유통영역이다. 지역화폐는 생산자 운동이 아닌 소비자 운동이 강하다. 강수돌(2002)은 지역화폐운동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탈피를 위해서 생산의 지점에서 시작한 기존 운동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유통관계의 혁신이 그 얼마나 생산관계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던진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것인지, 지양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완결되지 않은 미결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즉 레츠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혁파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득권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 관계를 세우려는 사회적 노력이 힘차게 병행될 때 레츠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지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레츠는 자본주의의 결합(대량 실업자의 생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 생태적 파괴성 등)을 매꾸어주는 기능적 역할밖에 못할 것이”(강수돌 2002, 146)다.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의 규모 수준 및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함께 존립 기반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대안 모델의 상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민주주의적 대안 모델의 잠재력은 지역화폐의 정착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류 시장경제에 도전할 때만 변혁적인 잠재력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화폐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지역화폐공동체는 ‘자본주의의 속에 잠복해 있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느냐’에 따라 운신의 폭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폐에 의한 지역 공동체 회복은 지역 차원의 공동체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현행 체제의 대안모델로 가치가 있다.

6. 결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 참여를 배제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 방식의 일환인 지역화폐운동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화폐의 이념을 담고 있는 선례 중 대부분은 경제 침체기나 불황기에 번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역화폐운동은 기존의 시장경제제도의 문제점인 빈부격차, 실업, 미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해결하고자하는 대안경제제도로 부각이 되었다.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를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거부하는 대안적 사회모델로 지역화폐공동체는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삶을 모색한다. 특히 상품-화폐관계를 넘어서 상호부조의 공동체 형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역화폐운동은 지역 공동체를 토대로 그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결정과 운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지역화폐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수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대면관계를 증폭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 및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 회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물물거래 및 품앗이를 교환하는 동시에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참여자의 이러한 경험은 바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는 민주주의 대안 모델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를 토대로 대면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만 ‘제한된’ 지역의 속성 때문에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대안 모델로서의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적 제한성은 지역화폐의 토대가 되는 지역화폐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행 화폐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는 ‘화폐’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화폐가 다른 상품과 달리 교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화폐 그 자체에 강제로 혹은 인위로 직접 교환성을 부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상품사회가 등장하면서 화폐의 필요성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런 점에서 현행 화폐를 폐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다양한 지역화폐로 대체한다고 해서 사회문제 중 일부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화된 일반화된 상품사회에서 지역적 유통관계의 변혁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기본 토대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희박해 보인다.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특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에서 거래되는 서비스 및 물품 교환은 상당 부분 현행 생산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지역화폐운동은 자본주의의 시장구조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상품사회의 균열 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대면적 유대관계를 복원시키는 동시에 참여자가 필요한 물건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대담. 2002. “NAM과 지역통화운동.” 『녹색평론』 7-8월호.
- _____. 송태욱 옮김. 2005.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한길사.
- 가토 토시하루, 윤전우·제진수 옮김. 2006. 『에코머니』. 이매진.
- 강수돌. 2002. “이윤과 권력을 동시에 넘는 실험.” 『문화과학』 겨울호.
- 강환세. 2005. “지역통화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 사회감사접근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인천. 200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희선. 2006. “지역통화운동이 갖는 경제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성공회

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김성훈. 2006. “지역주민 스스로 돈을 발행하자.” 『환경과 생명』 50.
- 김현욱. 2007. “지역화폐 참여에 관한 연구—송파품앗이와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용. 2000.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동민·최한주. 2003.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9(1).
- 류은화. 2000.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마루야마 마코트. 1996. “경제순환과 지역화폐.” 『녹색평론』 9-10월호.
- 마르크스. 김수행 옮김. 2005. 『자본론』 1권. 비봉출판사.
- 바바라 브란트. 1996. “공동체의 돈 만들기 운동.” 『녹색평론』 3-4월호 (<http://www.greenreview.co.kr>).
- 박용남. 2001. “한밭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실험.” 『녹색평론』 9-10호.
- _____. 2011. 『꾸리찌바 에필로그—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지구를 살리는 창조적 도시혁명』. 서해문집.
- 베르나르 리에테르. 1998. “탐욕과 희소성을 넘어서.” 『녹색평론』 5-6월호.
- 아베 요시히로·이즈미 루저. 전정근 옮김. 2002.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 아르케.
- 양정하. 2009. “지역화폐운동의 성격과 과제.” 『지역사회』 61호.
- 윤형식. 200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사회와철학』.
- 이득연. 2000. “지역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도시와 빈곤』 46호.
- 이숙례. 1999. “지역화폐.” 『도시문제』 34(371).
- 이창우. 2002. “한국사회 지역화폐의 현황과 과제.” 『전국 지역화폐 워크샵 새로운 돈의 얼굴, 공동체 화폐 실험이야기』.
- 이채언. 2000. “상호부양의 교환체제, “레츠” 시스템에 관한 이론 및 경험의

- 연구.” 『경제개발연구』 16(2).
- 임종환. 2004. “지역화폐, 대안적 경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운동.” 한밭레츠 자료실.
- 제프리 잉햄. 홍기빈 옮김. 2011. 『돈의 본성』. 삼천리.
- 조너선 크롤. 박용남 옮김. 2003.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
- 조지프 슈페터. 변상진 옮김. 2011.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한길사.
- 주성수. 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 천경희. 2006.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험과 소비자주의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이용재 옮김. 2003. 『소유란 무엇인가』. 아카넷.
- 『부산일보』, 2011년 9월 3일자.

- Aldridge, Theresa J., & Alan Patterson. 2002. “LETS get real: constraints on the development of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s.” *Area* 34(4).
- Bobbio, Norberto. 1984. *The Future of Democracy: A Defence of the Rules of the Gam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hen, Benjamin J. 2001. “EMU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Charles Wyplosz (ed.). *EMU: The Impact on Europe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 William Rehg. The MIT Press.
- King, Mervyn. 1999.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New and Old.” *New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 Pacious, Michael. 1997.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A Rural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ism?” *Journal of Rural Studre* 13(4).
- Peacock, Marks. S. 2000.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a solution to the employment dilemma?”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71:1.

www.totnes.transitionnetwork.org/totnespound/home

투고: 2011.10.25 심사: 2011.10.26 확정: 2011.11.21